

# 4 산 믿음의 신학으로서 칼빈의 성화론

유태주 교수 / 한일장신대학교 조직신학

## 시작하는 말

21세기의 교회는 어느 시대보다도 산 믿음의 신학과 신앙이 요구되는 시대이기도 하다. 지난 20세기는 이성을 앞세운 모더니즘(modernism)적인 인본주의신학의 여파로 교회의 신앙이 흔들리더니, 이제 21세기에 들어서서는 바른 신학을 재확립하기도 전에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적인 인본주의신학이 신학계와 교회를 강타하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서의 신학계는, 진보적인 성향은 물론 보수적인 성향의 신학도, 성경적이며 사도적인 신앙과 신학의 터를 떠나서 방황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의 세계, 신학계의 현상이며, 우리 한국의 신학계도 예외가 아니다.

이러한 때에 16세기에 사도적이며 성경적인 신학을 확고히 하면서, 21세기의 적용에도 가능한 구원관을 확립한 칼빈의 신학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특히 성경의 중심 원리인 구원을 떠난 신학을 하거나, 구원의 진리를 추구한다 하면서도 믿음과 행함을 분리시키는 파편화된 신학을 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산 신앙'으로 인도하지 못하는 신학의 현실에서

칼빈의 성화론 이해는 새로운 도전이 된다. 믿음과 행함을 하나로 보는 칼빈의 '산 믿음의 신학으로서 칼빈의 성화론' 이해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 1. 현대신학의 구원론의 위기와 칼빈과 웨슬리의 성화론 연구의 중요성

21세기에 접어든 세계는 전반적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세계적인 문제는 평화의 상실과, 그 회복의 징조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우리는 평화 상실의 근본 원인을 세상의 소금과 빛을 감당하지 못한 교회의 신앙과 신학의 변질에서 찾는다. 신학의 변질은 현대 진보주의신학과 현대 보수주의신학을 망라하여 구원신학의 상실과 혼란에서 야기되었다고 본다.

#### 1) 현대 진보주의신학의 구원론의 위기

평화를 상실한 오늘의 세계는 타락한 서양 기독교 국가들에 제1차적인 책임이 있다. 경제적인 풍요의 시대라 하지만 지금도 70억 인구의 80%는 굶주리고, 죽어 가는 사람이 많다. WTO 경제체제는<sup>1)</sup> 경제협력의 시대라 하기보다는 강대국에 의한 효율적인 경제 침략의 시대이기도 하다.

인류의 생명이 경멸당하여 윤리적 평화가 위협받고 있다. 그동안 인류는 문명의 시기에 오히려 성행한 노예매매 시대를 거쳤다. 서양에서 비롯된 제국주의는 아프리카를 비롯한 아시아와 약소민족들을 철저히 착취하였다. 서부 아프리카에서 팔려 나간 노예의 수는 약 2천만에 달하고 그 삼분

1. WTO(世界貿易機構, World Trade Organization)는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체제를 대신하여 세계무역질서를 세우고 UR(Uruguay Round of Multinational Trade Negotiation :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의 이행을 감시하는 국제기구이다. 1995년 1월 1일에 설립되었으며,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다. 국가 간 경제분쟁에 대한 판결권과 그 판결의 강제집행권 이용, 규범에 따라 국가간 분쟁이나 마찰을 조정한다 하나, WTO가 약소국의 경제에 도움보다는 오히려 약자에게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의 일은 여자들이었다.<sup>2)</sup> 노예매매에 만족하지 못한 서양 제국들은 세계를 식민지화하였다. 아시아와 아프리카가 사실상 완전히 강대국들의 손에 들어간 것이다. 우리 나라도 그 피해를 본 대표적인 경우이다. 21세기에 와서도 강대국들의 약소민족 지배는 형태를 달리할 뿐 계속되고 있다. 노동착취의 노예매매에서 성(性)노예매매로의 전환도 그 하나의 경우이다. 더욱 통탄할 일은 세계 각국이 거의 모두 양심을 버린 서양 제국들의 과거 역사를 모방하려 하는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21세기 인류의 생명을 경멸하는 최대의 문제 역시 인간 자신의 껍에서 나온 인간복제 문제다. 인간의 장기가 소나 돼지의 내장처럼 매매되는 가증한 시대가 된 것이다.<sup>3)</sup> 지금 온 세계는 평화와 생명이 총체적으로 위협받고 있다. 이제 우리는 어디에 근본 원인이 있는가를 알아보아야 할 때이다.

제1세계의 악행은 18세기 말부터 구원신학 상실에서 비롯된다. 오늘의 세계사는 제1세계인 서양이 주도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와는 관계 없는 현실이다. 그런데 서양이 주도한 세계사는 비극의 역사로 시작한다. 서양인들은 아프리카에 들어가서 동네에 불을 지르고, 도망 나온 남녀 젊은이들을 배에 실어 짐승처럼 팔아넘겼다. 그들의 식민지 정책은 극에 달하여, 19세기 동안에 아시아에서 독립국으로 남은 나라는 중국, 일본, 태국 뿐이었다. 21세기인 오늘에도 형태만 바뀌었을 뿐 서양 제국의 비참한 세계주도는 계속되고 있다.

서양사는 18세기 칸트(I. Kant, 1724-1804) 이후 신학이 인본주의 도덕철학으로 변질되었다. 생명의 복음은 아시아인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을 향하여 가는 길에 유럽을 복음화하였다. 사도들과 16세기 루터(Luther, Martin, 1483-1546), 칼빈(Calvin, John, 1509-1564) 등 개혁자들과, 18세기에는 영국의 요한 웨슬리(Wesley, John,

2. 강석인, 「만리장성에서 아우슈비츠까지」(서울 : 고려원, 1996), 251-253.

3. cf. 그레고리 펜스 편, 류지한 외 역, 「인간복제의 윤리학」(*Flesh of My Flesh : The Ethics of Cloning Humans*)(서울 : 도서출판올림, 2002).

1703-1791)에 이르기까지 구원의 복음은 왜곡되지 않고 지켜져 왔다. 이렇게 18세기는 아름다운 신앙부흥의 세기였으나, 동시에 이성의 시대(the age of reason)요 계몽사조(the enlightenment)의 시대이기도 하다. 칸트(1724-1804)는 이 세기에 사상적 주역을 담당하였다. 데카르트(Rene Descartes 1596-1650) 이후 신의 존재에 대한 과학적 근거와, 기독교 복음의 핵심인 구원을 확실하게 말할한 사람은 칸트라 할 수 있다. 비록 그 자신의 의도는 그 반대였을지라도 말이다. 칸트는 순수이성의 인식영역뿐만 아니라 윤리적 행위와 관계되는 실천이성의 영역에 있어서도 인간 주체 중심의 분석을 한다. 그 결과 칸트의 윤리관은 인간 의식 내부에 새겨진 보편적 도덕률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가장 윤리적이고, 실천이성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인간이라 한다. 도덕적인 인간은 자신의 충동이나 경향성(inclination)이 아닌 의무(duty)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고, 어떠한 행동이 윤리적이기 위해서는 도덕률을 지키기 위한 동기 이외의 다른 동기가 없어야 한다고 보았다. 모든 도덕률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자신이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행동하는 황금률'이며, 칸트는 이것을 정언명령(categorical imperative)이라 하여 모든 행동의 보편적인 원리로 보았다. 이렇듯 칸트의 윤리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실천이성에 따라 보편적인 도덕률에 맞는 자율적인 자유의지의 사용이다. 후에 그는 이러한 윤리에 기초하여 「이성의 한계 내에서의 종교」라는 저서 속에서 전통적인 기독교의 교훈을 거부하고, 그의 윤리적인 종교관을 말한다.<sup>4)</sup>

칸트의 순수이성비판이나 실천이성비판에서 중요한 작업적 가설로 전제되는 것은 그의 이원론(dualism)이다. 그는 모든 인식 대상들을 현상계(phenomena)와 본체계(noumena)로 이해하였다.<sup>5)</sup> 현상계는 인간의 오감으로 감지되는 현상들로 이루어져, 경험 가능한 인식의 세계로서 과학적

4. 한상화, "포스트모더니즘,"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2003.

5. Immanuel Kant, *Critique of Practical Reason*, trans. Norman Kemp Smith(London : Macmillan and Co., 1953), 서문(preface) 17-33, 257-275.

지식은 여기에 속한다. 본체계는 인간의 오감으로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의 영역으로서 물 자체(things in themselves), 실체, 신, 자유, 인간의 영혼 등을 가리킨다. 본체계에 대해서 칸트는 불가지론을 취하며, 순수이성의 영역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 이러한 칸트의 이원론이 기독교신학에 주는 의미는 종교의 대상이 더 이상 사실의 영역에 관계되지 않고, 신앙의 영역에 관계된다는 것을 뜻한다. 그 결과는 자유주의신학에 도입되어, 신학의 영역을 사실판단과 가치판단의 이원론적 구도에서, 가치판단만으로 보게 된다. 기독교가 사실을 배제한 가치로만 전락하게 된 것이다.

서양사 속에 이성운동을 일으킨 것은 17세기 데카르트(Descartes, 1596-1650), 스피노자(Spinoza, 1632-1677), 라이프니츠(Leibniz, 1646-1716), 로크(Locke, 1632-1704) 등이다. 그러나 17세기의 분위기는 아직도 전통과 신앙의 권위에서 떠나려고 하지 않았다. 그런데 18세기에 들어서자 칸트의 등장으로 이성의 권위가 우선하게 되었고, 계몽주의사조의 과격한 형태인 프랑스혁명(1789) 사상의 노선을 따라 이성의 권위만을 추구하게 되었다. 그 결과는 무신론, 자연주의, 반전통주의로 과격하여졌다. 볼테르(Voltaire, 1694-1778)의 "신부들의 창자로 귀족들을 목매다는 것을 보기 원한다."는 말은 당시의 이성중심의 무신론적 분위기를 예시한다.<sup>6)</sup> 19세기 전반에는 칸트의 뒤를 이어 헤겔(Hegel, 1770-1831)이 독일 관념론 철학을 대성한다. 19세기 중엽은 한번 고삐를 풀어헤친 인간이성이 방향을 잃고 더욱 과격한 인본주의 사상들이 속출한다.

이와 같은 인본주의 사상들은 신학에 있어서 진보주의 내지 자유주의<sup>7)</sup> 형성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신학적 자유주의는 이성에 근거한 인간의 자율성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그것은 이른바 과학적 방법론,

6. 한철하, "한국교회의 진로", 「신학과 선교」, 제5호(서울 :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2001), 17.

7. 여기서 신학적 진보주의 내지 자유주의는 칸트 이래 19세기의 슬라이어마허에서 슈바이처에 이르는 자유주의신학과, 바르트의 신정통주의, 볼트만의 신자유주의, 그리고 존릭이나 폴 나이더의 혼합주의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초자연에 대한 반대, 그리고 인본주의 사고방식이다. 그러므로 자유주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한다. 창세기 3장에서 옛뱀 마귀는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창 3:1)라고 질문한다. 이렇게 신학적 자유주의는 하나님의 말씀의 신빙성과, 권위에 대한 불신과, 배신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자유주의신학은 불신과 사이비과학으로 구성된 인본주의의 바벨탑이라 할 수 있다.<sup>8)</sup>

그러므로 메이첸(J. G. Machen)은 자유주의신학의 문제점은 그 기초가 비기독교적이며 비과학적인 데 있다고 지적하였다.

“현대 자유주의가 비판받아 마땅한 점은 첫째로 그 기초가 비기독교적이며, 둘째로 비과학적인 데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가 유익할 점은 현대 자유주의신학이 전통적인 용어를 왜곡되게 사용하는 것은 경멸하며, 따라서 자유주의신학은 기독교와 다른 종교일 뿐만 아니라 전적으로 다른 종교라는 점이다.”<sup>9)</sup>

메이첸이 말하는 비과학이란, 자유주의자들이 단지 물질중심의 세계관에 의하여 영적이며 도덕적인 가치에 대하여 정확한 안목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뜻이다. 그는 현재의 우리 사회, 특히 자유주의 사조가 지닌 형태는 근대 과학에 지나치게 과장되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사회가 영적, 도덕적, 교육적인 분야에서 크고 심각한 손실을 보고

8. 박해경, 「복음주의와 신학선교」(서울: 아가페문화사, 2003), 17.

9. Modern liberalism may be criticized (1) on the ground that it is un-Christian and (2) on the ground that it is unscientific. We shall concern ourselves here chiefly with the former line of criticism; we shall be interested in showing that despite the liberal use of traditional phraseology modern liberalism not only is a different religion from Christianity but belongs in a totally different class of religions. J. Gresham Machen, *Christianity & Liberalism*, (NY: Macmillan, 1923), 7.

있다고 본다. 즉, 메이첸은 우리가 영혼을 죽이는 사회구조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자유주의신학을 필두로 현대사회는 근대과학의 역활을 지나치게 높이 평가하는 불균형의 상태, 이것이 비과학적이라고 메이첸은 본 것이다.<sup>10)</sup>

현대 진보주의신학의 이러한 비과학적인 방법론과 그 신학의 왜곡됨에 반하여, 우리는 신학작업에 있어서 진정한 의미의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과학의 본질은 그 정확성에 있다. 과학적 연구가 정확하려면, 어떠한 자료라도 빠뜨려서는 안 된다. 과학적 실험을 하려는 자는 누구나 모든 자료에 똑같은 비중을 두어야 한다.”<sup>11)</sup> 그러나 이른바 진보주의 신학자들의 심각한 문제점은 성경이 명백하게 진술하고 있는 영적 실재들의 차원을 제거하는 데 있다. 즉, 신학이 과학적이려면 신학의 자료인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모든 자료들을, 물질적 차원이든 영적 차원이든, 무시하지 않고 공정하게 다루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기독교신학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독교의 모든 진리들이, 그 모든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충분히 이해되어야 한다.

그러나 진보주의신학은 성경의 다양한 진리들을 끊임없이 언급하기는 하지만, 그들에게 다양한 진리들은 단지 그들의 신학체계를 세우는 데 쓰이는 건축자재에 불과하다. 따라서 그들은 지상의 영역에 속한 것들에 중점을 두어 취급한다. 예를 들면 도덕성, 사회 구조, 인권, 환경보존과 생명의 신학 등이 그들이 다루는 중요 신학의 주제들이다. 이러한 것들도 중요하다. 그러나 영적인 것, 곧 구원과 함께 다루어야 할 부수적인 주제들이 중심의 주제로 뒤바뀐 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10. 박해경, Op. cit., 17-18.

11. The essence of science is in its accuracy. If any scientific research is to be accurate it must not omit any data. Of anyone who engages in a scientific experiment he must give an equal weight to all data. Han Chul-Ha, “Theological Foundation of ACTS” ACTS Theological Journal 3(March, 1986), 48.

우리가 신학방법론을 참으로 과학적이 되게 하려면 칸트, 슐라이어마허, 리츨, 슈바이처, 바르트, 볼트만, 틸리히, 몰트만, 존희, 폴 나이터, 안병무, 변선환 등과 같은 이른바 진보주의 신학자들의 축소주의(縮小主義)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그들은 성경이 명백하게 계시하고 있는 영적, 초자연적 영역들을 제거하거나 왜곡시키는 축소주의적 신학을 통하여 성경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있다.<sup>12)</sup> 따라서 구원은 더 이상 이들의 신학 중심 주제가 아니다. 범죄하여 본성적으로 철저하게 타락한 우리 인간은, 생명이신 성령님을 떠나 스스로의 지식과 지혜와 힘으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로운 선행과 윤리적인 이상사회를 건설할 수 없다.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와 구원의 생명 없는 인간중심의 사상은 오히려 세계를 생명말살과 전쟁으로 나아가는 발판이 되었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 2) 현대 보수주의 신학계의 혼란

칼빈의 신학이 요청되는 데는 진보주의신학 부분만이 아니다. 정통신학을 표방하는 이른바 보수주의 신학계에도 칼빈의 성경적이며 사도적인 신학의 회복이 요구된다. 즉, 복음주의를 표방하는 보수주의 신학계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신학방법론에 있어서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신학의 내용인 믿음에 있어서 산 믿음을 제시하지 못하는 데 있다.

### (1) 신학방법론상의 문제

보수주의는 선한 목적에도 불구하고 신학방법론상에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대부분의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성경과 신조를 따라 정통신앙을 보수하기는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보수적 신학자들은 단지 그들 자신의 교단적 입장에서 교리를 고수하는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교단신학 입장을 지키기 위하여 교파적 교리수호의 입장을 넘어서지 못하

12. 박해경, op. cit., 18-19.

는 것이 보통이다. 신학의 우선적인 목적은 화석화된(petrified) 교리조항들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타락하여 죄악으로 죽게 된 인간을 죽음의 멸망상태에서 구원받는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려 주며, 주님을 믿어 구원얻도록 하는 산 신앙(living faith)을 강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보수주의 신학자들은 기독교의 본질적인 목표와는 상관없이, 자신들의 교리조항들만 수호하는 데 급급한 근본주의자들과 같은 경우가 허다하다.

이러한 현상은 복음주의 계통의 저명한 신학자라도 예외가 아니다. 맥그라스(Alister McGrath; 1953-)는 복음주의를 정의하면서 6가지 지배원칙이 복음주의에 있다고 한다. 그것은 1) 하나님 지식에 대한 원천과 기독교인의 삶의 안내자로서의 성경의 절대 권위, 2) 죄인의 구주로서 성육신하신 하나님이며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엄성, 3) 성령님의 주권, 4) 개인적 회심의 필요성, 5) 기독교인 개인과 교회 전체로서 복음전도의 우위성, 6) 영적 보양과 친교와 성장을 위한 기독교공동체의 중요성이다.<sup>14)</sup> 이렇게 맥그라스의 복음주의의 지배원칙은 훌륭한 진술이다. 그러나 그는 기독교의 중심 주체로서의 복음이 한 믿음과 여러 신앙조항들로 구성되었음의 관계를 제시하였다면 좀더 탁월한 진술이 되었을 것이다.

메이첸(J. Gresham Machen; 1881-1937)도 자유주의자들의 공격에 맞서서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그리스도의 부활', '성경의 영감', '믿음으로 구원',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등의 중요 신앙조항들을 수호하였다. 자유주의의 도전을 이겨낸 당대와 오늘에 이르기까지도 참으로 귀한 신학적 업적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메이첸도 정통교리 수호에는 큰 공을 세웠으나, 칼빈처럼 구원의 본질과 여러 신앙조항들 간의 연계를 좀더 효과적으로

13. Alister McGrath(1953 -); currently Professor of Historical Theology at Oxford University, and Principal of Wycliffe Hall, Oxford.

14. Alister McGrath, 신상길·정성욱 옮김, 「복음주의와 기독교의 미래」(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7). 박해경, op. cit., 23-24, 재인용.

진술하는 데 실패함으로써 근본주의라는 신학적 한계를 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수주의신학이 자신이 속한 교단의 신학을 보수하려고, 혹은 복음의 정통성을 지키려고 정통신학의 교리들을 옹호하는 데 큰 공헌을 하였으나, 기독교의 중심 진리를 소홀히 하는 진술상의 허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칼빈에 의하면 우리가 한 믿음, 곧 복음신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좌에 높이 올라가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실로 신앙은 여기저기를 두루 돌아보는 것이 아니며, 또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논해야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유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하나님과 연합하고, 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에서, 만일 신앙의 종류가 여럿이라면 신(神) 또한 마찬가지로 여럿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 쉽게 성립된다. 그런데 세례는 신앙의 성례전이기에 때문에, 그것이 하나라는 사실에 기초하여 하나님의 유일성을 우리에게 확증해 준다.<sup>15)</sup>

칼빈이 추구한 기독교의 핵심은 ‘광대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크신 구원사역’이다. 이 중심 진리는 칼빈의 「기독교강요」의 용어로 표현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창조자 하나님께서(I), 구속자 하나님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셨고(II), 주님의 은혜 안에서 교회의 복음사역을 선포하셨으며(IV), 믿음으로 죄인은 의롭게 되며 새롭게 변화되어 영생을 얻게 된다(III).<sup>16)</sup>

15. And since faith certainly ought not to look hither and thither, or run up and down after various objects, but to look, refer, and cleave to God alone, it is obvious that were there various kinds of faith, there behaved also to be various gods. Then, as the baptism of faith is a sacrament, its unity assures us of the unity of God. Hence also it is proved that it is lawful only to be baptised into one God, because we make a profession of faith in him in whose name we are baptised.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Trans., Henry Beveridge(London : Arnold Hatfield, for Bonham Norton. 1599), I. xiii. 16.

(2) 믿음과 행함(성화)이 분리되어 산 믿음(living faith)을 제시 못함. 보수주의 신학계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믿음과 행함을 분리시켜 봄으로써 구원에 이르는 산 신앙을 사실상 제시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는 점이다. 소위 진보신학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부터 이탈하여 인본주의신학으로 전락하였다면, 보수주의신학은 성경은 신뢰하면서도 그 내용을 방법론적으로 파편화시키더니, 신학의 본질적인 문제에 속하는 믿음과 행함을 분리시켜 그 열매인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믿음과 행함의 분리 경향은 그 원인이 다양하다고 본다. 첫째는 외부적인 영향이고, 둘째는 내부적인 데 있다.

#### ① 외부적인 영향

로마 교회의 영향과 이른바 어느 정도 정통신학을 표방하는 바르트신학(신정통주의)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로마 교회는 믿음과 행함을 분리시켜 구원은 믿음만이 아니고 행함도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성자의 공덕이 믿음과 분리되어 신자에 전승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러한 구원관을 루터의 이신칭의론이 철저히 배제하였음에도 아직 그 사상이 개혁신학계에도 완전히 제거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로마 교회의 자연신학적인 공덕 사상은 1960년대에 “비기독교 종교에 관한 선언”으로 열매 맺는다. 이른바 포용주의로서 기독교 외의 종교에도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비친다는 것이다. 이것은 일종의 교활한 종교다원주의일 뿐이요 배도(背道)의 사상이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하심을 얻는다.”(以信得義)는 진리는 가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유일한 진리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얻습니다.”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진리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16. 박해경, 「복음주의와 신학선교」(서울 : 아가페문화사, 2003), 26-27.



그러나 로마 교회는 서양철학을 신학에 차용하다 이원론에서 벗어나지 못하자 동양철학과 종교 사상을 도입하고 있으나, 이는 혼합주의(종교다원주의)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간과하거나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로마 교회는 중세부터 이방종교 사상을 은밀하게 도입해다 니<sup>17)</sup>, 1960년대에 들어서서 ‘제2차 바티칸공의회’에서 이른바 ‘비그리스도 교에 관한 선언’(Nostra aetate)<sup>18)</sup>을 채택함으로써, 공식적으로 이방 종교들을 포용주의와 화해라는 이름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종교다원주의에의 길을 연 것이다.

성경에 명백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라”(딤후 2 : 5)고 선언되었고,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살후 2 : 3)라고 경고하였다. 기독교회(Protestant Church)는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순수하게 지키고 있으나, 일부 인본주의

17. “버가모의 대주교요 왕이었던 이탈루스가 주전 133년에 죽자 사단은 그의 바벨론의 사제 지위의 사명탑을 로마로 옮겼다. 로마 황제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주전 74년에 에투루리아 법령상의 대사제로 뽑혔다. 카이사르는 주전 63년에는 바벨론 법령에 의해 공식적으로 이교도 최고 제사장인 “최고승원장”(Pontifex Maximus)이 되었으며 이탈루스, 즉 버가모의 대사제의 권력과 명예를 자기 것으로 하여 로마를 제멋대로 자기 것으로 삼아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최초의 로마 황제가 바벨론 사제제도의 총 두목이 된 것이며, 로마는 바벨론의 계승자가 된 것이다. 로마의 황제들은 주후 376년에 로마 황제인 그라시안(Gratiano) 황제가 기독교도의 입장에서 그것을 거부할 때까지 이교의 총 대사제를 겸하였다. 주후 376년에 로마 황제인 그라시안(Gratiano) 황제가 기독교도의 입장에서 최고승원장 자리를 거절하자, 로마의 주교 다마스루스가 378년에 그 직책에 선출되었다. 그렇게 해서 주후 378년에는 바벨론 법령의 우두머리가 로마 교회의 두목이 된 것이다. 즉, 사단은 로마와 바벨론을 한가지 종교로 통합해 버린 것이다. 이어서 성모 마리아 숭배는 주후 381년에 시작되었다.” Tim Lahaye, 김의자 역, 『요한계시록해석』, 417-418; 손기태, 『일곱우뢰의 비밀』(서울: 마라나다예언연구원, 1988), 164-166에서 재인용. cf. 유선호, 「천주교도 기독교인가?」(서울: 하늘기획, 1984-2003), 140.

18.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69-94), 605-612.

(humanism) 경향의 신학 사상을 받아들인 신학자들은<sup>19)</sup>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종교에도 중보자들이 있다는 입장을 취한다.<sup>20)</sup> 이들의 신학에도 아무리 좋은 강점들이 있다 하더라도 중심적 구원관이 ‘배도’의 사상에 빠져 있다는 점이다. 종교다원주의는 최대의 배도 사상이라 생각된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를 앗하기 위한 보좌가 바로 종교다원주의이기 때문이다.<sup>21)</sup>

또 하나의 외부적인 영향은 진보주의와 복음주의 중간에 서서 구원관을 다루어 온 칼 바르트(Karl Barth)의 영향이라 할 수 있다. 바르트의 신학은 20세기 초부터 로마 교회와 기독교, 그리고 기독교 내의 진보, 보수를 망라하여 영향을 끼쳤다. 따라서 보수주의신학에서 바르트의 신학은 개혁신학자로 인정되기도 한다. 그러나 바르트의 신학은 하나님의 은총을 성경계시를 넘어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한다. 그 결과 바르트의 믿음은 명목상의 믿음, 심지어는 이방 종교인의 이상숭배적인 신앙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만인구원론(universalism)에 빠지고 만다.<sup>22)</sup> 그러므로 그의 신학은 성경이 말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과는 관계가 없다. 따라서 바르트의 신학은 ‘산 신앙’(living faith)을 사실상 거부하는 맹목적인 믿음 내지는 죽은 믿음을 추구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 ② 내부적인 문제

믿음과 행함의 분리 경향은 그 원인이 외부적인 영향에도 있으나 내부적인데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본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순수하게 받아들

19. modernism적인 인본주의이건, post-modernism적인 인본주의이건 간에 ‘인본주의’(humanism)는 종교다원주의(religious pluralism)를 지향한다.

20. Paul F. Knitter, No Other Name? A Critical Survey of Christian Attitudes Toward the World Religions(New York: Orbis Books, 1985), 145-168.

21. W. A. Visser't Hooft, *Kein anderer Name*(Basilea Verlag, 1965), 임홍빈 역, 「다른 이름은 없다」(서울: 성광문화사), 13-64.

22. C.D., II/2., 174.

인다는 입장에서도, ‘이신득의’(以信得義)의 신앙진리를 성경의 본래의 뜻을 떠나 한편으로 치우치게 왜곡시켜 온 경우가 많음을 본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행(善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오직 믿음만 보시고 의롭다 받아 주시기 때문에, 선행이 기독교회의 가르침과 기독교인의 삶에서 소홀히 여겨지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 오늘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현실이 되고 있다. 그러나 선행 없는 기독교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며,<sup>23)</sup> 그러한 열매 없는 기독교인을 참된 신자라고 인정할 수 있겠는가?<sup>24)</sup>

특히 내부적으로 믿음과 행함을 분리하여 보는 경향은 교파 중심적인 신앙조항 해석에서 비롯된다. 각 교파의 신학에 따라서 교파 중심적인 신앙조항을 강조하고, 한편은 지식 중심의 믿음을 구원의 원리로 강조하고, 다른 한편은 행함의 신앙조항에 중심을 두다 보니 로마 교회처럼 믿음과 행함이 분리되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고 말았다. 이러한 현상은 ‘산 믿음’의 신학과 신앙을 일으키지 못하고, 구원의 길을 가로막고,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상실한 부패한 교회의 모습을 노출시키고 있는 것이다.

### ③ 칼빈의 성화론 이해의 중요성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칼빈의 구원신학과, 특히 그의 산 신앙운동으로서의 성화론 이해의 필요성을 절감한다.

첫째, 칼빈의 신학원리는 신본주의 신앙운동이다. 신본주의에 반하는

23.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마 5 : 13-16).

24.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약 2 : 14-26).

인본주의는 하나님 없이 사는 이 시대의 사상을 보여 주는 전형적인 예이다. 인본주의자들이 절대자를 말한다 해도 그것은 인간을 위해서 있는 가상적이 존재일 뿐이다. 그러나 신본주의는 하나님의 존재를 모든 것에 우선하는 것으로 보는 우주관, 인생관을 말한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실을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다. 창세기 1:1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전에 영원히 계심을 말하고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발원하고 의존함을 말하고 있다. 계시록 마지막 장도 하나님께서 우주의 주관자요 그 완성자이심을 확인한다.<sup>25)</sup>

둘째, 칼빈의 신학은 구원의 심각성을 인식하며 믿음을 세워 주는 신학과 신앙운동이다. 믿음을 갖는 유익은 믿고 구원얻기 위함이다. 그것은 곧 ‘구원의 심각성’ 문제이다. 이 구원의 심각성은 칼빈이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이 구원(救援)의 심각성(深刻性)은 성경 자체(聖經自體)에서 볼 수 있다. 성경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죄인(罪人)을 의인(義人)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즉, 천국으로 가야 하고, 지옥으로 떨어져서는 안 되겠다는 신앙은 성경에서 뚜렷이 드러난다. 예수님의 교훈은 철두철미 이 한 가지 점에 집중된다. 산상수훈 첫마디가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로 시작한다. 팔복의 마지막 복도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로 끝마친다.<sup>26)</sup>

이러한 구원의 심각성이 바울, 야고보, 베드로, 요한의 모든 편지에서 나타난다. 한 예로 야고보서를 바로 깨닫는 열쇠도 구원의 심각성 전체에 있다고 본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약 1:12).<sup>27)</sup> 이러한 구원의 심각성에 우리의 신학과 신앙운동은 전개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기독교 중심 진리의 주제는 유일하신 참하

25. 안경승, “ACTS 신학운동과 신앙운동의 이해와 의의”, 『신학과 선교』, 제4호(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2000), 457.

26. 한철하, “ACTS 신앙운동에 있어서의 ‘구원의 심각성’ 공동자각의 위치”, (ACTS 신학연구원, 2000), 2.

27. Ibid., 3-4.



나눔에 대한 신앙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 생명” (요 17 : 3)이 핵심이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하심을 얻는다’(以信得義)는 진리는 가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유일한 진리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얻습니다.”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진리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구원에 대한 심각한 인식이 있기 위해서는, 인간의 경건치 앎과 불의에 대하여 위로부터 입하는 하나님의 진노(롬 1 : 18, 마 10 : 28, 5 : 29, 눅 12 : 5)를 진심으로 두려워해야 한다. 더욱 두려운 것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할지라도 불법을 행하면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없이 없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다(마 7 : 15-23).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골 2 : 22)로 인정하심을 받는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 구원을 위한 믿음에 모든 신학적 항목들이 연결된다(one faith and several articles). 이 ‘한 신앙’(one faith)에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과 활동이 기초한다. ‘한 신앙’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과 하늘의 복을 받는 구원하는 신앙이다.<sup>28)</sup>

셋째, 칼빈의 구원론은 칭의(稱義)와 성화(聖化)를 함께 보는 ‘산 신앙’(living faith) 운동이다. 칼빈은 믿음에 의한 칭의를 말하면서도 믿음의 지속적인 진보로서 회개와 함께 성화를 강조한다. 그는 성화를 칭의와 구분하여 말하지 않는다. 믿음에는 당연히 그 열매가 있어야 함을 말하는

28. 칼빈은 one faith와 every word of God의 관계를 그의 책(Inst., III. 2. 29)에서 잘 말해 주고 있다. “Therefore, when we say that faith may rest upon a freely given promise, we do not deny that believers embrace and grasp the Word of God in every respect : but we point out the promise of mercy as the proper goal of faith.” Park, Hae-Kyung, *Introductory Study of Theological Synopsis*(Asia United Theological University Asian Center for Theological Studies and Mission, 2002), 90-95.

것이다. 실천적 삼단론법은 이를 입증한다.<sup>29)</sup>

칼빈이 믿음과 선행을 하나로 보는 ‘산 신앙’은 성경이 말하는 진리인 것이다. 요한복음 3 : 16의 믿음과 야고보서 2 : 22의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는 말씀은 행함을 겸한 믿음을 말한다.

이러한 산 신앙의 복음을 재확립하기 위하여 우리는 칼빈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메시지를 핵심진리로 삼는 신학 연구가 필요함을 절감한다. 나아가 구원의 신학에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진리가 바르게 선포되려면, 그 믿음이 산 믿음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의 열매로서 당연히 선행론 내지는 성화론이 따라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성화론이 제거된 현대판 니콜라당의 독소가 이단들(이른바 구원파의 결정론과 이원론적 구원론)<sup>30)</sup>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보수신학계에까지 침투한 ‘무 율법주의’(無律法主義)를 제거하기 위하여, 칼빈이 증거하는 성화론에 대한 이해를 살펴봄으로써 21세기 교회의 신학을 재정립하며, 참된 신앙관을 재확립하고자 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먼저 칼빈의 성경해석에 나타난 ‘산 믿음의 신학’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29. “니젤에 의하면, 칼빈에게는 실천적 삼단논법(syllogismus practicus)의 단서가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다. 니젤이 볼 때 그 문제는 의인과 거룩 혹은 신앙과 열매 같은 것이 아니고, 다만 행동이 개인의 선택의 확신에 대해서 어떤 의의를 갖는가 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칼빈은 신자에게 그들의 선택에 관한 확실한 인식을 갖게 하기 위한 매개로서 행동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한다. 반면, 바르트는 칼빈에게서 실천적 삼단논법의 증거를 발견하고, 이러한 인식이 유용할 뿐만 아니라 필수적인 것이라고 말한다. 칼빈이 선행의 중요성에 관하여 말할 때, 그는 그리스도 이외의 근거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유일한 근거로서의 그리스도 안에서 인식하게 되는 행동과 태도에 관여하는 것이라고 바르트는 말한다.” 김종희, “칼빈의 예정론에 나타난 실천적 삼단논법,” 천안대학교, 2004.

30. 현대판 니콜라당들이 이른바 구원파는 ‘기쁜소식선교회’(Good News Mission ; 소속 단체인 International Youth Fellowship 국제청소년연합 IYF), ‘생명의말씀선교회’(Life World Mission) 등의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다.

### 칼빈의 빌립보서 3장 주석에 나타난 산 믿음으로서의 성화 이해

칼빈은 빌립보서 3장 주석을 통하여 바울의 뜻대는 최종 구원이었다(뜻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빌 3:14)고 증언한다. 그런데 바울은 뜻대에 도착하는 승리를 확신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딤후 4:7-8)는 고백이 이를 증거한다. 그러므로 칼빈은 우리도 “뜻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 신앙의 경주에서 모두 승리자가 되기를 소원한다.

#### 1. 바울은 육체적 신리를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추구한다.

빌립보서 3:7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자기가 얻었던 것들을 말하고 있다. 우리가 헛된 자만심으로 교만하여지는 유일한 이유는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자기의 선으로 헛된 생각을 하는 것, 교만해지는 것, 오만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가 있다. 반대로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면, 그 즉시 전에는 헛된 영화로 우리의 눈이 부셔 있었던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나 매우 보잘 것 없는 것으로 여겨지게 된다. 그런데 바울은 그가 아직 소경이었을 때 외모만을 보고 취했던 모든 것들이, 그 눈이 밝아졌을 때는 자기에게 해로운 것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sup>31)</sup>

31. “What things were gain to me. He says, that those things were gain to him, for ignorance of Christ is the sole reason why we are puffed up with a

바울이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자기가 얻었던 것들(자기의 의)이 해가 되는 이유는, 그것들이 그리스도께 나아감에 방해물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칼빈은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데 이보다 더 해로운 것이 또 있겠는가?”고 동의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기의 의에 대해서는 별거벗은 것처럼 여기고, 무익한 것으로 생각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이다. 바울은 자기의 의란, 그리스도를 내쫓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자기에게 해로운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sup>32)</sup>

8절 전반부에서 바울은 우리를 속이고 있는 모든 생각들과 대항해서 복음을 높이고 있다. 모든 것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고상해 보일 뿐이지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무엇보다도 가장 뛰어난 최고의 것이므로, 이것과 비교해 볼 때 천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절에서 그리스도만을 아는 지식에다 최고의 가치를 두어야 한다는 것을 배우도록 하차고 칼빈은 강조한다.<sup>33)</sup>

vain confidence. Hence, where we see a false estimate of one's own excellence, where we see arrogance, where we see pride, there let us be assured that Christ is not known. On the other hand, so soon as Christ shines forth all those things that formerly dazzled our eyes with a false splendor instantly vanish, or at least become paltry. Those things, accordingly, which had been gain to Paul when he was as yet blind, or rather had imposed upon him under an appearance of gain, he acknowledges to have been loss to him, when he has been enlightened. “John Calvin, *Calvin's Commentaries; The Epistles of Paul the Apostle to the Philippians*, Translator; T. H. L. Parker, Editors; D. W. Torrance & T. F. Torrance(Grand Rapids, Michigan: Wm. B. Eerdmans Publishing Co.), 272.

32. “Why loss? Because they were hindrances in the way of his coming to Christ. What is more hurtful than anything that keeps us back from drawing near to Christ? Now he speaks chiefly of his own righteousness, for we are not received by Christ, except as naked and emptied of our own righteousness. Paul, accordingly, acknowledges that nothing was so injurious to him as his own righteousness, inasmuch as he was by means of it shut out from Christ.” Ibid., 272.

8절 중반부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란 말씀을 통해 바울은 앞에서보다 더욱 분명하게 말한다. 칼빈은 이 말씀을 선원(船員)들에게서 택한 비유라고 해석한다. “선원들은 배가 조난(遭難)당할 위험에 이르게 되면 모든 물건들을 배 밖으로 집어 던져 배를 가볍게 하여 안전하게 항구에 당도하는 것이다. 그런데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잃는 길을 택한다.”<sup>34)</sup> 그러나 칼빈은 이 문제에 좀더 신중한 접근을 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산이나 명예나 가문, 그리고 외부적인 의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 필연적인 것인가 함은 의문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어진 것이므로, 그 자체는 결코 경시할 수 없다.”<sup>35)</sup>

그러므로 칼빈은 사도가 이러한 사물들의 자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성을 언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진실로 천국은 감추인 보화와 같아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팔아 버리는 데 어느 누구도 주저하지 않는다(마 13 : 46). 그러나 사물의 실존과 그 속성은 서로 차이가 있다. 바울은 자기의 지파와 아브라함의 후손됨을 필연적

33. “For the sake of the excellency of the knowledge. He extols the gospel in opposition to all such notions as tend to beguile us. For there are many things that have an appearance of excellence, but the knowledge of Christ surpasses to such a degree everything else by its sublimity 2, that, as compared with it, there is nothing that is not contemptible. Let us, therefore, learn from this, what value we ought to set upon the knowledge of Christ alone.” Ibid., 272.

34. “It is a similitude taken from seamen, who, when urged on by danger of shipwreck, throw everything overboard, that, the ship being lightened, they may reach the harbour in safety. Paul, then, was prepared to lose everything that he had, rather than be deprived of Christ.” Ibid., 272.

35. “But it is asked, whether it is necessary for us to renounce riches, and honors, and nobility of descent, and even external righteousness, that we may become partakers of Christ(Hebrews 3 : 14). for all these things are gifts of God, which, in themselves, are not to be despised?” Ibid., 273.

으로 포기하고 이방인이 되었다가 다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는 말하지 않는다. 다만 그의 가문을 의지하는 것을 포기했다고 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정숙한 본성이 부정하게 되고 냉철한 본성이 무절제하게 되며 예의 바르고 분별이 있는 본성이 방탕하게 된다고 하는 의미는 아니다. 자기를 의롭게 보는 헛된 생각을 스스로 버리고, 오히려 그것을 부끄러운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바울은 자기의 행함을 버린 것이 아니라 자기를 교만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사역 속에 숨어드는 자만심을 버린 것이다. 재산과 명예에 대해서도 여기에 집착하고자 하는 모든 생각들을 떨어 버릴 때에, 주님께서 요구하신다면 언제든지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될 것이다. 또한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필연적으로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한다고 직접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 주님께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면 가난을 감수하고 견딜 수 있는 준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sup>36)</sup>

36. “I answer, that the Apostle does not speak here so much of the flyings themselves, as of the quality of them. It is, indeed, true, that the kingdom of heaven is like a precious pearl, for the purchase of which no one should hesitate to sell everything that he has(Matthew 13 : 46). There is, however, a difference between the substance of things and the quality. Paul did not reckon it necessary to disown connection with his own tribe and with the race of Abraham, and make himself an alien, that he might become a Christian, but to renounce dependence upon his descent. It was not befitting, that from being chaste he should become unchaste ; that from being sober, he should become intemperate ; and that from being respectable and honorable, he should become dissolute ; but that he should divest himself of a false estimate of his own righteousness, and treat it with contempt. We, too, when treating of the righteousness of faith, do not contend against the substance of works, but against that quality with which the sophists invest them, inasmuch as they contend that men are justified by them. Paul, therefore, divested himself—not of works, but of that mistaken confidence in works, with which he had been puffed up. As to riches and honors, when we have divested ourselves of attachment to them, we will be prepared, also, to renounce the things themselves, whenever the Lord will require

그러므로 칼빈은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영광으로 삼으려 하는 것을 방해 하면서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것 전체를 가리켜서 ‘그리스도 밖’이라고 부른다.”<sup>37)</sup>

8절 후반부의 “배설물로 여김은”이란 말씀은, 단지 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을 지시하고 있는데, 바울은 이미 앞에서 말한 것에 더욱 확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칼빈은 해석한다. “안전하게 피난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도구들과 또 다른 것들을 바다에 던져 버린 자들은 재물을 멸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재물과 함께 빠지지 않기 위해서, 비록 아깝고 원치 않는 일이지만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들은 그 파선을 피하게 되면 자기들이 던져 버린 것들을 생각하고 후회하며 한숨을 짓는다. 그러나 바울은 이와 정반대로 단순히 이전에 좋은 것으로 알았던 모든 것들을 포기한 것만이 아니라, 배설물과 같이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것으로 보았고, 마지못해서 던진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sup>38)</sup>

따라서 육체를 신뢰하는 것은, 교부와 학자들의 말대로, 지푸라기나 개 의 먹이에 불과하며, 하나님 앞에서 구역질나는 것이기에 바울이 그것을

this from us, and so it ought to be. It is not expressly necessary that you be a poor man, in order that you may be Christian; but if it please the Lord that it should be so, you ought to be prepared to endure poverty.” Ibid., 273.

37. “I consider as apart from Christ everything that is a hinderance in the way of Christ alone being our ground of glorying, and having an entire sway over us.” Ibid., 273.

38. “For those who cast their merchandise and other things into the sea, that they may escape in safety, do not, therefore, despise riches, but act as persons prepared rather to live in misery and want, than to be drowned along with their riches. They part with them, indeed, but it is with regret and with a sigh; and when they have escaped, they bewail the loss of them. Paul, however, declares, on the other hand, that he had not merely abandoned everything that he formerly reckoned precious, but that they were like dung, offensive to him, or were disesteemed like things that are thrown away in contempt.” Ibid., 273.

배설물로 여긴 것이라고 칼빈은 강조한다. “크리스소스툼(Chrysostom)은 이것을 ‘지푸라기들’이라고 했다. 그런데 문법 학자들은 ‘커시바론’ 대신에 ‘스쿠바론’이 사용되었는데 이 말은 개에게 던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그리스도에게 합당치 않은 모든 것이 왜 우리에게 거치는 것이 되는가 하는 데는 그럴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볼 때 구역질나는 것이기 때문이다.”<sup>39)</sup> 따라서 이것은 우리에게 분명히 거스르는 것이요 버려 마땅할 배설물인 것이다.

8절 마지막의 “그리스도를 얻고”라는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잃는 방법 외에는 그리스도를 얻을 수 없음을 암시하고 있다.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써만이 부요하게 되어지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축복이 되신다고 한다. 이미 말한 대로 모든 것들을 잃는 길을 통해서만 우리는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데서 벗어나지 않게 될 것이다.<sup>40)</sup> 그러므로 칼빈은 “생활에 흠이 없고 완전해 가까웠던 바울이 자기의 의를 버리고 그것을 배설물로 알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면, 모든 악한 것들로 위장하고 그리스도와 거스리는 자기의 공로를 높이기 위해 부끄러워하지 않는 오늘날의 바리새인들에게는 무엇을 의미하겠는가?”<sup>41)</sup>라는 표현으로 회개

39. “Chrysostom renders the word—straws. Grammarians, however, are of opinion, that *skubalon* is employed as though it were *kusibalon*—what is thrown to dogs. And certainly there is good reason why everything that is opposed to Christ should be offensive to us, inasmuch as it is an abomination in the sight of God”(Luke 16:15). Ibid., 273.

40. “That I may, gain Christ. By this expression he intimates that we cannot gain Christ otherwise than by losing everything that we have. For he would have us rich by his grace alone: he would have him alone be our entire blessedness. Now, in what way we must suffer the loss of all things, has been already stated—in such a manner that nothing will turn us aside from confidence in Christ alone.” Ibid., 274.

41. “But if Paul, with such innocence and integrity of life, did not hesitate to reckon his own righteousness to be loss and dung, what mean those Pharisees of the present day, who, while covered over with every kind of

를 촉구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모든 가면을 벗고 적나라하게 나아가면 우리는 아무것도 잃는 것이 없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한때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도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실제로 얻게 된다. 그러므로 바울은 9절 전반부에서, 그리스도의 풍성하심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다 분명히 보여 주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을 얻고 또 발견하기 때문이다.<sup>42)</sup>

칼빈은 9절 후반부의 말씀을 믿음으로 얻은 의에 대한 좋은 설명이라고 본다. 바울은 여기서 두 가지 '의'를 비교하고 있다. 하나는 인간에 속했다고 하는데 바울은 이것을 '율법에서 난 의'라고 부른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로서 난 것으로 '믿음으로 얻어진 것'이요, 그리스도 신앙 안에 있는 것이라고 바울은 가르친다. 바울은 이 둘이 서로 대립하고 있어서 함께 있을 수가 없다고 한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얻기 위해서는 율법에서 난 의를 포기하고 버려야만 한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요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sup>43)</sup>

wickedness, do nevertheless feel no shame in extolling their own merits in opposition to Christ?" Ibid., 274.

42. "And, unquestionably, we lose nothing when we come to Christ naked and stript. of everything, for those things which we previously imagined, on false grounds, that we possessed, we then begin really to acquire. He, accordingly, shews more fully, how great the riches of Christ, because we obtain and find all things in him." Ibid., 274.

43. "Not having mine own righteousness. Here we have a remarkable passage, if any one is desirous to have a particular description of the righteousness of faith, and to understand its true nature. For Paul here makes a comparison between two kinds of righteousness. The one he speaks of as belonging to the man, while he calls it at the same time the righteousness of the law ; the other, he tells us, is from God, is obtained through faith, and rests upon faith in Christ. These he represents as so directly opposed to each other, that they cannot stand together. Hence there are two things that are to be observed here. In the first place, that the righteousness of the law must

이 문제에 대하여 칼빈은 개혁교회와 교황주의자들과의 차이점을 설명한다.

“오늘날 이 두 경우에 있어서 우리는 교황주의자들과 크게 대립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는 사람에게서 온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또 한편으로는 이 둘은 서로 혼합해서 서로 구분이 없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sup>44)</sup> 그러므로 칼빈은 바울이 말한 각 의(義)에 대한 충분한 의미를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을 요청한다. 바울은 믿는 자들에게는 자기의 의가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어떤 행함으로 인한 의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의임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런데 바울은 행함으로 인한 의에 대한 어떠한 경우의 여지도 남겨 놓지 않는다. 바울은 행함으로 얻은 의는 '율법의 의'라고 로마서 10 : 5에서(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다.<sup>45)</sup> 그런데 문제는 인간은 누구나 율법을 행함으로 의를 얻을 수 없는 것이 성경의 진리이다.

따라서 행함의 의를 말하는 교황주의자들의 말에서는 어떤 진실성도 찾아볼 수 없다. 왜냐하면 첫째로, 바울이 오직 의식을 행함으로 의롭게

be given up and renounced, that you may be righteous through faith ; and secondly, that the righteousness of faith comes forth from God, and does not belong to the individual." Ibid., 274.

44. "As to both of these we have in the present day a great controversy with Papists ; for on the one hand, they do not allow that the righteousness of faith is altogether from God, but ascribe it partly to man ; and, on the other hand, they mix them together, as if the one did not destroy the other." Ibid., 275.

45. "He says, that believers have no righteousness of their own. Now, it cannot be denied, that if there were any righteousness of works, it might with propriety be said to be ours. Hence he leaves no room whatever for the righteousness of works. Why he calls it the righteousness of the law, he shows in Romans 10 : 5 ; because this is the sentence of the law, He that doeth these things shall live in them." Ibid., 275.

되었다고 하는 것은 답변할 필요도 없는 난센스이기 때문이요, 둘째로 이러한 방법으로 바울은 두 가지의 의 중에서 하나는 사람에게,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대조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바울은 일반적으로 인간의 공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왜냐하면 율법은 행함을 구속하고 있는 반면에 믿음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벌거벗게 하여 그리스도의 의로써 옷을 입도록 하여 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바울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말할 때 그 이유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선하심을 따라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때문이요 또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sup>46)</sup>

2.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산 믿음(living faith)이어야 하기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좇아가는 믿음의 경주요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

바울은 10절 후반부를 통해서 믿음의 능력과 성질을 설명하기를, 그리스

46. "The law, therefore, pronounces the man to be righteous through works. Nor is there any ground for the cavil of Papists, that all this must be restricted to ceremonies. For in the first place, it is a contemptible frivolity to affirm that Paul was righteous only through ceremonies; and secondly, he in this way draws a contrast between those two kinds of righteousness—the one being of man, the other, from God. He intimates, accordingly, that the one is the reward of works, while the other is a free gift from God. He thus, in a general way, places man's merit in opposition to Christ's grace; for while the law brings works, faith presents man before God as naked, that he may be clothed with the righteousness of Christ. When, therefore, he declares that the righteousness of faith is from God, it is not simply because faith is the gift of God, but because God justifies us by his goodness, or because we receive by faith the righteousness which he has conferred upon us." Ibid., 275.

도를 아는 것이 곧 믿음이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는 것이라고 한다. 그는 또 '부활'은 구속의 완성이므로, 그 안에 사망의 개념까지를 포함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칼빈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단순히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죽음과 부활의 열매를 이해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바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이 얼마만큼 크다는 것과 이것들이 우리 속에서 얼마나 효험이 되는가 하는 것을 깨달을 때인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속함을 받게 되고, 죄를 쳐부수며 죄책에서 놓임을 받게 되며, 만족을 누리고, 사망을 이기며, 의와 복된 영생의 소망을 얻게 되는 이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된다.<sup>47)</sup>

10절 후반부에서는 값없이 받은 의는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받은 것이요 믿음으로 얻는다는 말에 이어서, 바울을 경건한 자의 실생활에 대해서 말함으로써 자기는 실생활에 아무런 효험도 주지 못하는 '죽은 믿음'을 소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바울은 이러한 경건한 생활이 주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자들에게서 나타난다는 것을 암시 하면서, 거짓 사도들은 이와 반대로 무익한 의식적 요소들만을 강조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칼빈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축복에 참여한 사람은, 자기의 생활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따르겠다는 조건으로 자기에게 주어

47. "10. That I may know him. He points out the efficacy and nature of faith—that it is the knowledge of Christ, and that, too, not bare or indistinct, but in such a manner that the power of his resurrection is felt. Resurrection he employs as meaning, the completion of redemption, so that it comprehends in it at the same time the idea of death. But as it is not enough to know Christ as crucified and raised up from the dead, unless you experience, also, the fruit of this, he speaks expressly of efficacy. Christ therefore is rightly known, when we feel how powerful his death and resurrection are, and how efficacious they are in us. Now all things are there furnished to us—expiation and destruction of sin, freedom from condemnation, satisfaction, victory over death, the attainment of righteousness, and the hope of a blessed immortality." Ibid., 275.



졌다는 것을 알도록 하자고 강조한다.<sup>48)</sup>

그런데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고 또 죽음과 교통하는 것은 두 가지의 미가 있다고 칼빈은 말한다. 하나는 내적(內的)인 것으로써 성경이 보통 육신을 죽이는 것, 또는 옛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이 문제를 취급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외적(外的)인 것인데, 겉 사람을 죽이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십자가를 참고 견디는 것인데,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도 취급하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가 재난과 어려움을 무릅쓰고 주를 따르게 되는 것은, 그의 부활의 능력을 깨달은 이후에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기를, 우리가 살려고 하기 전에 먼저 죽어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한다.<sup>49)</sup>

48. "And the fellowship of his sufferings. Having spoken of that freely-conferred righteousness, which was procured for us through the resurrection of Christ, and is obtained by us through faith, he proceeds to treat of the exercises of the pious, and that in order that it might not seem as though he introduced an inactive faith, which produces no effects in the life. He also intimates, indirectly, that these are the exercises in which the Lord would have his people employ themselves; while the false Apostles pressed forward upon them the useless elements of ceremonies. Let every one, therefore, who has become through faith a partaker of all Christ's benefits, acknowledge that a condition is presented to him—that his whole life be conformed to his death." Ibid., 275-276.

49. "There is, however, a twofold participation and fellowship in the death of Christ. The one is inward—what the Scripture is wont to term the mortification of the flesh, or the crucifixion of the old man, of which Paul treats in the sixth chapter of the Romans; the other is outward—what is termed the mortification of the outward man. It is the endurance of the Cross, of which he treats in the eighth chapter of the same Epistle, and here also, if I do not mistake. For after introducing along with this the power of his resurrection, Christ crucified is set before us, that we may follow him through tribulations and distresses; and hence the resurrection of the dead is expressly made mention of, that we may know that we must die before we live. This is a continued subject of meditation to believers so

칼빈은 신자들이 이 땅에 머무르는 동안에 이와 같은 묵상을 계속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의 승리의 전주곡이기 때문임을 말한다. 즉, 우리가 만일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눔으로 말미암은 우리의 모든 불행은 오히려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된다. 왜냐하면 이러한 고난의 길을 통해서 우리를 영원한 축복으로 인도해 주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른 곳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찾아볼 수 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딤후 2: 11-12).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생활을 죽음에 이를 때까지 죽음에 대한 생각으로만 나타낼 수 있는 준비를 가져야 하며, 심지어는 그리스도의 삶도 죽음의 전주곡에 불과했다고 보아야 한다. 동시에 우리는 그 종족이 영원한 축복이라는 위로의 말씀에 기쁨을 가진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부활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음으로 자기가 부활의 영광을 얻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sup>50)</sup>

11절은 회의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진지한 노력을 일으키기가 어렵다는 말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도 많고 극심한 방해물들을 대항하여 싸워야 한다는 말은, 우리를 가볍게 시험해 보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니

long as they sojourn in this world." Ibid., 276.

50. "There is, however, a twofold participation and fellowship in the death of Christ. The one is inward—what the Scripture is wont to term the mortification of the flesh, or the crucifixion of the old man, of which Paul treats in the sixth chapter of the Romans; the other is outward—what is termed the mortification of the outward man. It is the endurance of the Cross, of which he treats in the eighth chapter of the same Epistle, and here also, if I do not mistake. For after introducing along with this the power of his resurrection, Christ crucified is set before us, that we may follow him through tribulations and distresses; and hence the resurrection of the dead is expressly made mention of, that we may know that we must die before we live. This is a continued subject of meditation to believers so long as they sojourn in this world." Ibid., 276.

기 때문이다.<sup>51)</sup> 칼빈은 이 말씀을 구원의 꾀대를 향한 적극적인 믿음의 선한 싸움, 곧 '산 믿음의 생활'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3. 산 믿음(living faith), 믿음의 경주자의 자세는 꾀대에 도착하기까지 앞을 향하여 쫓아가는(press on) 것이다.

12절 전반부에서 바울이 의도하고 있는 것은 자기가, 오직 그리스도만을 생각하고 모든 장애물들을 버렸다고 하는 그가, 아직까지도 그 바라는 바를 얻지 못하여 계속해서 바라고 이루기를 위해서 힘쓰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매우 중요한 말이다. 그런데 바울은 무엇을 아직도 얻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임을 받으면 그 즉시로 곧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요, 에베소서 2:6 말씀과 같이<sup>52)</sup> 소망 중에 이미 하늘에 앉게 되기 때문이다. 칼빈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우리의 구원은 소망 중에 바라는 것이므로 그것을 받으리라는 것은 참으로 분명하지만, 아직까지는 그것을 소유하는 기쁨을 누릴 수는 없다고 본다. 동시에 바울은 여기서 또 다른 문제, 즉 믿음이 장성하는 것과 앞에서 말한

51. "The phrase, if by any means, does not indicate doubt, but expresses difficulty, with a view to stimulate our earnest endeavor for it is no light contest, inasmuch as we must struggle against so many and so serious hindrances." Ibid., 276.

52.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엡 2:3-9).

고난의 장성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고 칼빈은 풀이한다.<sup>53)</sup>

바울은 앞에서 자기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또 힘써 노력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나서 아직도 여기에 이르지 못했다고 덧붙인다. 무엇 때문일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전적으로 참여할 때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만끽하고, 그를 완전히 알게 된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진해야 할 것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란 매우 힘든 것이므로, 오직 이것만을 위해 힘쓴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 있는 한에는 완전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고자 한 것이다.<sup>54)</sup> 그러므로 이 구절은 바울의 교리를 전혀 파괴하지 않을 뿐더러, 그가 의도했던 것을 바로 이해하게 되면 자기에게 맡겨진 임무를 충실하게 감당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동시에 우리는 바울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교훈을 함에 있어서 겸손하게 진행해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칼빈은 해석한다.<sup>55)</sup>

53. "It is asked, however, what it is that Paul says he has not yet attained? For unquestionably, so soon as we are by faith in grafted into the body of Christ, we have already entered the kingdom of God, and, as it is stated in Ephesians 2:6, we already, in hope, sit in heavenly places. I answer, that our salvation, in the mean time, is in hope, so that the inheritance indeed is secure; but we nevertheless have it not as yet in possession. At the same time, Paul here looks at something else—the advancement of faith, and of that mortification of which he had made mention." Ibid., 277.

54. "He had said that he aimed and eagerly aspired at the resurrection of the dead through fellowship in the Cross of Christ. He adds, that he has not as yet arrived at this. At what? At the attainment of having entire fellowship in Christ's sufferings, having a full taste of the power of his resurrection, and knowing him perfectly. He teaches, therefore, by his own example, that we ought to make progress, and that the knowledge of Christ is an attainment of such difficulty, that even those who apply themselves exclusively to it, do nevertheless not attain perfection in it so long as they live." Ibid., 277.

55. "This, however, does not detract in any degree from the authority of Paul's doctrine, inasmuch as he had acquired as much as was sufficient for

바울은 12절 후반부에서 자기가 지닌 모든 미덕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한다.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를 붙잡도록 그리스도께 잡힌 자였다. 즉, 그는 그리스도의 감화와 인도하심에서 결코 제외된 자가 아니었다. 그러나 나는 바울이 공개적인 선택으로 그리스도를 붙잡았다고 보는 것이 더욱 그 뜻을 분명히 밝혀 주는 것으로 본다.<sup>56)</sup>

바울은 13~14절에서 자기의 구원의 확실성에 대한 의문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비록 아직까지도 명확하지는 않지만, 그는 앞에서 말했던 것을 반복하면서 자기의 부르심의 목적을 아직 이루지 못했으므로 아직도 계속해서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간다고 말한다. 바울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이 한 가지 것만을 생각한다고 말함으로써 이 문제를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다.

바울은 이제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달려갈 길을 선으로 구별지어 제한해 놓으신 경주장에 비교한다. 그 이유는 첫째로 경주자가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가지 않는다면 출발점을 떠나는 것이 아무런 유익이 안 됨을 볼 때,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의 부르심의 길을 달려가야만 할 것이요, 우리가 추구하던 것을 얻을 때까지 결코 중단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둘째로 경주자에게는 그 나아갈 길이 선으로 구획이 되어 있어서 방향을 잡지 못해 목표가 없이 헤매지 않고 결승점을 향해 똑바로 나아가게 하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선이 구별되어 있어서 우리의 나아가는 방향을 빗

discharging the office committed to him. In the mean time, it was necessary for him to make progress, that this divinely-furnished instructor of all might be trained to humility." Ibid., 277.

56. "As also I have been apprehended. This clause he has inserted by way of correction, that he might ascribe all his endeavors to the grace of God. It is not of much importance whether you read as, or in so far as; for the meaning in either case remains the same—that Paul was apprehended by Christ, that he might apprehend Christ; that is, that he did nothing except under Christ's influence and guidance. I have chosen, however, the more distinct rendering, as it seemed to be optional." Ibid., 277.

나가지 않게 되며 하나님은 우리가 목표 없이 방황하도록 버려두시지 않기 때문이다. 셋째로 경주자는 부담이 없어야 하고, 어떠한 방해에도 달리기를 중단하지 않고 갖은 어려움을 극복해 가면서 자기의 경주를 계속해야 하는 것과 같이,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이 거룩하지 못한 곳으로 돌아서지 않도록 조심하여서, 모든 어지러운 것들에서 자유롭게 되어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드려야 하기 때문이다.<sup>57)</sup>

이 세 가지 것들을 바울은 한 가지 비유 속에서 의도하고 있는 것이다. 바울이 자기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한다고 말할 때에는, 오락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부지런히 근면하게 힘쓴다는 것을 표현코자 한 것이다. 쫓대를 향해서 쫓아간다고 한 것은, 그의 나아가는 길에 방황함이 없다는 의미이다. 누구든지 의와 구원을 얻는데 대한 교황 주의자들의 가르침은 냄새나는 배설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된 것이다.<sup>58)</sup>

57. "Now, he compares our life to a race-course, the limits of which God has marked out to us for running in. For as it would profit the runner nothing to have left the starting-point, unless he went forward to the goal, so we must also pursue the course of our calling until death, and must not cease until we have obtained what we seek. Farther, as the way is marked out to the runner, that he may not fatigue himself to no purpose by wandering in this direction or in that, so there is also a goal set before us, towards which we ought to direct our course undeviatingly; and God does not permit us to wander about heedlessly. Thirdly, as the runner requires to be free from entanglement, and not stop his course on account of any impediment, but must continue his course, surmounting every obstacle, so we must take heed that we do not apply our mind or heart to anything that may divert the attention, but must, on the contrary, make it our endeavor, that, free from every distraction, we may apply the whole bent of our mind exclusively to God's calling." Ibid., 278.

58. "These three things Paul comprehends in one similitude. When he says that he does this one thing, and forgets all things that are behind, he intimates his assiduity, and excludes everything fitted to distract. When he says that he presses toward the mark, he intimates that he is not wandering from

15~16절에서, 바울은 만일에 우리가 바라는 것을 아직 얻지 못했다면 하나님 계시어로 나아가야 할 것을 간접적으로 가르치고 있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가 점차적으로 나아가야 할 것을 말하여 줌으로써 정도에 좌절하는 일이 없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고 있다.<sup>59)</sup>

칼빈은 이 구절을 통해서 만일 우리와 한마음이 되기를 주저하는 자가 있다면, 우리는 아직 연약한 형제들의 무지함을 견디면서 그들의 부족은 용서해야 한다는 것도 배우도록 하자고 권고한다. 바울은 자기의 교훈을 확신하고 있었지만 아직 이 경지에 이르지 못한 자들이 점차 깨닫게 되도록 시간을 허락해 주면서, 그들을 계속 형제들로 여기기를 그치지 않는 모범을 보였기 때문이다.<sup>60)</sup>

칼빈은 16절부터 17절 전반부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기를 본받으라고 권면함으로써 그들이 자기와 같은 결승점에 도달하고, 같은 것을 생각하고, 같은 법도(法道)대로 행하도록 했다고 본다. 바울은 진정한 완전에 무엇인지를 아직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자기를 본받음으로 진정한 완전에 도달하기를 바랐다. 즉, 순전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으며, 곧 그들의 생각이 그리스도께 복종하기를 원하고 있었다. 바울을 본받는 것 안에 순전한 열심, 주님을 두려워함, 겸손, 자기 자신의 포기, 양순(良順), 사랑, 하나가 되고자 하는 열망과 같은 모든 미덕이 포함되어 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모두가 함께 자기를 본받는 자 되라고 분부한 것은, 모두가 한마음과 한뜻이 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기를 본받아서

the way.” Ibid., 278.

59. “Paul, accordingly, teaches indirectly, that we must make way for the revelation of God, if we have not yet attained what we seek.” Ibid., 278.

60. “Paul felt assured as to his doctrine, and yet he allows those who could not as yet receive it time to make progress, and he does not cease on that account to regard them as brethren, only he cautions them against flattering themselves hi their ignorance.” Ibid., 279.

완전에 달하는 목표란 ‘같은 것을 생각하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었다고 칼빈은 해석한다. 바울의 교훈 중에 제일 우선한 것은 교인들이 조화를 이룰 것과 스스로를 확립케 해 주는 규율이었기 때문이다.<sup>61)</sup>

바울은 17절 후반부에서 자기의 본을 받아 자신을 순결하게 하기를 작정하고 닦기를 원하는 자들은 모두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 방법을 통해서 모든 욕망의 의심은 사라지고 스스로 다른 사람과 경쟁을 피하게 된다. 동시에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 모두가 분별없이 흥내내는 일이 없도록 보다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sup>62)</sup>

칼빈의 빌립보서 3장 주석에 나타난 성화의 완전성 이해를 요약하면, 바울의 뜻대는 최종 구원이었다(뜻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빌 3:14). 첫째, 구원의 뜻대를 향하여 가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다. 둘째, 구원의 뜻대를 바라보는 자는 행악하는 자를 경계하여야 한다. 셋째,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 넷째, 육체적인 자랑거리는 배설물로 여겨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추구한다. 다섯째,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으며, 그 믿음은 ‘산 믿음’(living faith)이어야 하기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믿음의 경주요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 여섯째, 최종 구원을 쟁취하기 위한 믿음의 경주자의 자세는 뜻대에 도착하기까지 앞을 향하여 쫓아가는(press on) 것이다. 일곱째, 우리의 완전 성화의 성취는 하늘나라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61. “Observe, that the goal of perfection to which he invites the Philippians, by his example, is, that they think the same thing, and walk by the same rule. He has, however, assigned the first place to the doctrine in which they ought to harmonize, and the rule to which they should conform themselves.” Ibid., 280.

62. Ibid., 280.

서 주시는 의로 이루어지며, 그 믿음은 주님께 잡힌바 된 완전한 성화를 향하여 쫓아가는 산 믿음으로 나타나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내적 내지는 주관적으로는 “온전히 이룬 자들”(빌 3:15)로 표현되며, 외적 내지는 객관적으로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풋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자”(빌 3:13-14)로 성경은 말하고 있다. 즉, 성경은 ‘믿음에 합당한 열매로서의 성화’(living faith)를 지상에서의 완전성화로(내적·주관적 차원에서) 인정하면서, 외적·객관적으로는 아직 지상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으며 장차 하늘나라에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칼빈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은 신자라도 그 기쁨은 장차 하늘나라에서 맛볼 것이라 하므로, 객관적 의미의 성화론을 강조하여, 완전성화는 지상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그 과정에 있음을 말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그 과정과 자세가 중요한 것이다. 풋대를 향하여 달려 나가는 자세가 ‘산 신앙’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 산 믿음의 신학으로서 칼빈의 성화론

칼빈의 성화론은 ‘칭의의 계속적인 진보’라는 그의 말이 대변하듯 ‘산 믿음의 신학’을 대변하고 있다 하겠다. 그러므로 그의 산 믿음의 신학으로서 성화론을 요약 진술하면 다음과 같다.

#### 1.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sola fide)으로 얻는 구원

신자들의 의(義)는 언제든지 믿음에서 온다. 신자들이라도 그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칼빈의 불변의 명제요 성경의 진리이다. 여기에서 칼빈은 두 가지 점을 강력히 주장한다. 첫째로, 경건한 사람의 행위일지라도 하나님의 엄격한 판단에

따라 검토할 때는 정죄를 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로, 정죄를 면할 만한 행위가 있다고(사람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가정할지라도 그것은 여전히 용납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행위자 자신이 죄 짐을 지고 있어서 그 행위도 곧 약화되고 오염될 것이기 때문이다.<sup>63)</sup>

따라서 행위(行爲)의 의(義)를 믿어서는 안 되며, 행위는 거룩의 원인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행위의 의를 믿어서도 안 되며, 행위를 자랑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칼빈은 분명히 한다.<sup>64)</sup> 그러므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음에 의해서 의롭다함 받으며, 동시에 가치 없는 행위라도 의로 인정받는다. 그러나 우리는 값없이 주시는 칭의를 얻은 후에 따르는 행위를 중요시하더라도, 그런 행위가 사람을 의롭게 하는 기능을 떠맡는

63. "We must strongly insist on these two things : That no believer ever performed one work which, if tested by the strict judgment of God, could escape condemnation ; and, moreover, that were this granted to be possible, (though it is not) yet the act being vitiated and polluted by the sins of which it is certain that the author of it is guilty, it is deprived of its merit." Inst., III. xiv. 11.

64. "In this matter the minds of men must be specially guarded against two pestiferous dogmas, viz., against putting any confidence in the righteousness of works, or ascribing any glory to them. From all such confidence the Scriptures uniformly dissuade us when they declare that our righteousness is offensive in the sight of God unless it derives a sweet odour from the purity of Christ : that it can have no other effect than to excite the divine vengeance unless sustained by his indulgent mercy. Accordingly, the only thing they leave to us is to deprecate our Judge with that confession of David : "Enter not into judgment with thy servant : for in thy sight shall no living be justified,"(Psalm 143 : 2). And when Job says, "If I be wicked, woe unto me : and if I be righteous, yet will I not lift up my head,"(Job 10 : 15). Although he refers to that spotless righteousness of God, before which even angels are not clean, he however shows, that when brought to the bar of Gods all that mortals can do is to stand dumb. He does not merely mean that he chooses rather to give way spontaneously than to risk a contest with the divine severity, but that he was not conscious of possessing any righteousness that would not fall the very first moment it was brought into the presence of God." Inst., III. xiv. 16.

것이라 생각해서는 안 된다. 또는 행위가 칭의의 기능을 믿음과 나눈다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 이신칭의(以信稱義)가 전적으로 유지되지 않으면 행위의 불결이 폭로될 것이기 때문이다.<sup>65)</sup> 따라서 성경에서 격찬하는 모든 복도 사람이 죄를 사함받고 복을 받기까지는 아무 소용이 없고, 삶에게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한다.

그러나 죄의 사함을 받음으로 복을 받은 후에 다른 복들도 자리를 얻을 수 있다. “사람이 믿음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받으므로 그 자신이 의로울 뿐만 아니라, 그의 행위까지도 자체의 가치 이상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조금도 불합리한 일이 아니기 때문”<sup>66)</sup>이다.

이런 의미에서 칼빈은 하나님께서는 행위를 완전한 것같이 시인하신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이렇게 인정하는 근거는 ‘용서를 받은 후에 하는 행위라야 용납되기 시작한다’는 데 있다. 그런데 이 용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보실 때 오는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을 때에 그리스도의 무죄로 우리의 불의가 덮여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의롭게 되는 것과 같이, 우리의 행위도 모든 허물이 그리스도의 순결로 묻혀 버리며, 우리에게 책임이 돌러지지 않기 때문에 의롭고 또 의롭다는 인정을 받는다. 따라서 우리는 당연히 믿음으로만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위까지도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이 행위의 의가 믿음과 값없이 얻은 칭의에 의존하며 실현되기 때문에, 이 행위는 당연히 믿음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칼빈은 주장한다. 즉, 원인에 대한 결과와 같이 믿음에 종속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행위의 의에는 이신칭의를 배척하거나 흐려지게 할 권리가

65. “Nor let us suppose, that after free justification works are commended, as if they afterwards succeeded to the office of justifying, or shared the office with faith. For did not justification by faith always remain entire, the impurity of works would be disclosed.” Inst., III. xvii. 9.

66. “There is nothing absurd in the doctrine, that though man is justified by faith, he is himself not only not righteous, but the righteousness attributed to his works is beyond their own deserts.” Ibid.

전혀 없다.<sup>67)</sup>

## 2.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산 믿음’(living faith)이어야 한다

구원(救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그런데 칼빈은 선행(善行)이 없는 믿음이나 선행이 없이 성립하는 칭의(稱義)를 꿈꾸지 않는다(For we dream neither of a faith devoid of good works nor of a justification that stands without them.). 믿음과 선행은 굳게 결합되어야 한다는 것을 칼빈은 말한다. 물론 이때에도 칼빈은 여전히 칭의의 근거는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에 있다고 주장한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향할 때, 그 믿음을 통하여 주님의 온전한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다.<sup>68)</sup>

67. “In this way we can admit not only that there is a partial righteousness in works, (as our adversaries maintain,) but that they are approved by God as if they were absolutely perfect. If we remember on what foundation this is rested, every difficulty will be solved. The first time when a work begins to be acceptable is when it is received with pardon. And whence pardon, but just because God looks upon us and all that belongs to us as in Christ? Therefore, as we ourselves when ingrafted into Christ appear righteous before God, because our iniquities are covered with his innocence ; so our works are, and are deemed righteous, because every thing otherwise defective in them being buried by the purity of Christ is not imputed. Thus we may justly say, that not only ourselves, but our works also, are justified by faith alone. Now, if that righteousness of works, whatever it be, depends on faith and free justification, and is produced by it, it ought to be included under it and, so to speak, made subordinate to it, as the effect to its cause ; so far is it from being entitled to be set up to impair or destroy the doctrine of justification.” Inst., III. xvii. 10.

68. “For we dream neither of a faith devoid of good works nor of a justification that stands without them. This alone is of importance : having admitted that faith and good works must cleave together, we still lodge justification in faith, not in works. We have a ready explanation for doing this, provided we turn to Christ to whom our faith is directed and from whom it receives its full strength.” Inst., III. xvi. 1.



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가? 믿음에 의해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기 때문이며, 그리스도의 의에 의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의(義)를 붙잡으면, 동시에 거룩함(聖)도 붙잡지 않을 수 없다고 칼빈은 말한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기”(고전 1:30)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의롭게 하시면 반드시 동시에 거룩하게도 만드신다. 이 은혜들은 영원히 풀 수 없는 유대관계로 결합되어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주의 지혜로 조명하신 사람들을 구속하시며, 구속하신 사람들을 의롭다 하시며, 의롭다하신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신다.<sup>69)</sup>

우리는 의와 거룩함을 구별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자신 안에 두 가지를 다 포함하시며, 그 둘은 서로 뗄 수 없게 결합되어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를 얻기 원하는가? 그렇다면 우선 그리스도를 소유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소유하면서 주님의 거룩함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스도는 둘로 나누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고전 1:13). 주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며 우리가 이 은혜들을 누리도록 하시는 방법은, 주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뿐이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동시에 주신다. 한쪽이 있으면 반드시 다른 쪽도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행위와 떨어진 것이 아니면서도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님이 사실인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참여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며, 그리스도 안에 참여한다는 것은 의에 못지않게 거룩함을 포함한다.<sup>70)</sup>

69. Inst., III. xvi. 1.

70. “But, since the question concerns only righteousness and sanctification, let us dwell upon these. Although we may distinguish them, Christ contains both of them inseparably in himself. Do you wish, then, to attain righteousness in Christ. You must first possess Christ; but you cannot possess him without being made partaker in his sanctification, because he cannot be divided into pieces(I Cor. 1:13). Since, therefore, it is solely by expending himself that the Lord gives us these benefits to enjoy, he

신자의 선행은 그리스도와 의 연합의 증거라는 의미에서도 필수성을 가진다.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주님과 연합됨으로 의와 구원을 모두 받는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요일 5:12),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요 5:24, 6:40),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어 영원한 생명의 후사가 되었다(딤후 3:7, 롬 5:1-2). 신자들은 그리스도께서 내주(內住)하시므로(요일 3:24),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굳게 연결된다. 주님의 생명에 참여한 자들은 하늘자리에 앉는다(엡 2:6). 그들은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으며(골 1:13), 구원을 얻는다. 이 구절들의 의미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의를 얻는 능력이나 단지 구원을 얻는 능력을 받는다는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의와 구원을 모두 받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든지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으면, 즉시 하나님의 자녀와 하늘의 후사와 의의 참여자와 생명의 소유자가 된다. 그리고 어떤 이들의 말과 같이 공로를 세울 기회를 얻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공로를 전부 옮겨 받는다.<sup>71)</sup>

칼빈의 신자의 선행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의 필수적인 행위이다. 달리 말해서, 신자의 행위가 없으면 그리스도와 의 연합을 이루지 못한 증거로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칼빈의 이러한 견해는 성경에 근거한다. 야고보는 행위를 강조한다(약 2:21, 24).<sup>72)</sup> 그러나 바울은 믿음을

bestows both of thee at the same time, the one never without the other. Thus it is clear how true it is that we are justified not without works yet not through works, since in our sharing in Christ, which justifies us, sanctification is just as much included as righteousness.” Inst., III. xvi. 1.

71. “Therefore, as soon as you become in grafted into Christ through faith, you are made a son of God, an heir of heaven, a partaker in righteousness, a possessor of life; and (by this their falsehood may be better refused) you obtain not the opportunity to gain merit but all the merits of Christ, for they are communicated to you.” Inst., III. xv. 6.

72.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강조한다(롬 4:3, 갈 3:6).<sup>73)</sup> 그럼에도 양자의 견해는 서로 조화된다.<sup>74)</sup> 누구든지 “야고보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과 모순되지 않도록 야고보의 말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성령은 바울의 입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의를 얻었다고 언급하신다(롬 4:3, 갈 3:6). 우리도 율법의 행위와는 별도로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가르친다. 그러나 동일한 성령께서 야고보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우리의 믿음은 믿음뿐만 아니라 행위로 성립된다고 가르치신다.”<sup>75)</sup> 따라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산 믿음’이라고 증거하는 성경 말씀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말씀과 서로 조화를 이룬다. 이렇게 구원에 이르는 산 믿음은 구원의 확신과 함께 행함이 있는 믿음이고, ‘성화’(sanctification)로 표현된다.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약 2:21-24).

73.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 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롬 4:1-3). “어리석도다 갈라디야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 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갈 3:1-7).

74. Inst., III. xvii. 11.

75. “If they hold James to be a servant of Christ, his sentiments must be understood as not dissenting from Christ speaking by the mouth of Paul. By the mouth of Paul the Spirit declares that Abraham obtained justification by faith, not by works; we also teach that all are justified by faith without the works of the law. By James the same Spirit declares that both Abraham’s justification and ours consists of works, and not of faith only. It is certain that the Spirit cannot be at variance with himself.” Inst., III. xvii. 11.

### 3. 칼빈의 성화에 대한 이해가 주는 유익(benefit)

칼빈은 장차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성화의 완성을 바라보고 ‘쫓아갈 때’(press on) 구원에 이르는 ‘산 믿음’이 확보·유지되며, 세상에 나아가 소금과 빛의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교회와 사회의 개혁이 가능하다고 본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데(요 3:16), 그 믿음은 ‘산 믿음’(living faith)이어야 하기에, 그 믿음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믿음의 경주요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칼빈은 빌립보서 3:10~16 말씀을 주석하면서 증거한다. 특히 12절 말씀 해석을 통하여 장차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완전성화를 바라보고 ‘쫓아갈 때’(press on) 구원에 이르는 ‘산 믿음’이 확보, 유지됨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최종 구원의 뜻대를 향하여 주님 앞에서 의의 면류관(영생)을 받기까지 끝까지 쫓아가는(press on) ‘산 믿음’의 자세는, 마치 화살이 과녁을 향하여 계속 날아갈 때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 맺음말

방향을 상실한 21세기의 신학계와 교계에 칼빈의 성화론 이해는 성경과 사도들이 증거한 산 믿음의 신학으로서 구원에 이르는 신앙으로 인도한다. 그런 의미에서 칼빈의 신학은 16세기에 국한시킬 신학이 아니다. 1세기의 주님께서 주신 사도적이며 성경의 신학인 동시에, 21세기에도 그대로 통용되는 구원의 진리를 가감 없이 제시한다.

특히 칼빈의 성화론 이해는 ‘산 믿음’의 신학의 중심 원리를 제시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justification by faith), 믿음의 참된 의미를 깨달아 구원에 이르는 신학을 통하여 교회의 신앙을 ‘산 믿음’의 신앙으로 재확립할 시기에 와 있다고 본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큰 차질이 생길 뿐만 아니라, 교회는 세상의 소금

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우리는 쓸데없이 밝히는 위기에 처하게 될까 두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때에 칼빈의 성화론 이해는 구원에 이르는 '산 믿음'(living faith)을 갖도록 인도하여 주는 성경에 기초한 참된 교회의 신학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도약과 개혁이 절실히 요구되는 한국의 신학계와 교계는 물론, 배도와 혼돈을 거듭하고 있는 온 세계 신학계와 교회가 칼빈의 산 신앙으로서의 성화론을 경청할 때가 바로 21세기 초인 지금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것은 21세기를 온 세계 민족과 역사를 초월하여, 오직 유일한 생명의 중보자 되시며(딤후 2:5)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계 민족들에게 증거하여 구원으로 인도하는 선교의 세기가 되며, 교회가 소금과 빛의 직분을 잘 감당하여 세계평화와 인권과 생명존중의 세기로 삼아 주님의 재림을 영광 중에 맞이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기도 한 것이다.